



Quant Analyst

조승빈

02)768-7281, seungbin.cho@wooriwm.com

김재은

02)768-7696, jaeun.kim@wooriwm.com

전설적 투자자(4) - 10루타의 꿈을 주는 피터 린치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을 중요시한 피터 린치

- 피터 린치는 '투자는 자신이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두 종류의 투자안목을 갖추면, 일반 투자자도 탁월한 주식발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나는 자신이 속해 있거나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특정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전문가적 안목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 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안목이다.
- 그러나 이러한 안목을 통하여 어떤 제품이나 식당이 마음에 들었다고 바로 투자해서는 안되며, 투자 전에 반드시 그 기업의 이익전망, 재무상태, 경쟁상황, 확장 계획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피터 린치는 충고하였다.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성장투자와 가치투자를 접목한 피터 린치의 종목선정 방식

- 피터 린치는 이익이 매년 20~25% 이상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선호하였다. 미래의 이익보다는 과거의 이익 성장을 중요시한 피터 린치는 기업의 수익 성장 계획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기업의 실적 성장과 함께 피터 린치는 재고자산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재고가 매출보다 빠르게 늘어나는지 여부도 확인하였다.
- 성장주를 좋아한 피터 린치에게서 가치투자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PEG이다. PEG는 PER을 EPS성장률로 나눈 값을 말한다. 피터 린치는 기업의 PEG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PS성장률이 15%인 기업의 PER은 15배 이하여야 투자매력도가 있다고 본 것이다. PEG가 0.5이하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이라 판단하였다.

피터 린치 투자전략의 11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33.9% 기록(KOSPI 11.3%)

- 최근 3년 연속 EPS성장률 20% 이상, 최근 분기 EPS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 이상, PEG 0.5배 이하 등의 종목선정 기준을 통과한 피터 린치 종목의 투자 성과를 확인해 보았다. 2001년 6월 이후 11년간 피터 린치 투자전략은 연평균 33.9%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같은 기간 KOSPI가 기록한 11.3%에 비해 높았다. 성장성이 높으면서도 밸류에이션은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는 기업에 대한 투자전략이 유효함을 입증한 결과이다.
- 2012년 1분기 기준 피터 린치 종목을 선정하였다. 피터 린치의 종목선정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동국제약, 코리아씨키트, 솔브레인, 셀트리온이었다.

1. 13년간 연평균 수익률 29.2%의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한 피터 린치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는 연평균 수익률 29.2% 기록 같은 기간 S&P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5.8%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는 1977년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를 맡아 13년 만에 규모를 660배나 늘린 전설적인 투자자이다. 그는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는 동안 연평균 29.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S&P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 15.8%의 2배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다.

그는 뛰어난 분석가이자 워커홀릭이었다. 일주일에 엿새 이상 종목발굴에 공을 들였다. 투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피터 린치는 1990년, 46세의 젊은 나이에 전격 사임하며 주위를 놀라게 한다. 은퇴의 이유는 가족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으며, 은퇴 이후 그는 재단 설립과 기부 등 자선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2. 투자는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되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이 가장 중요

피터 린치는 ‘투자는 자신이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하라’고 강조 그러나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이 있기 전에는 절대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함

피터 린치는 그의 저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원제: One up on Wall Street)’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자법을 설명하였다. 아마추어 투자자도 전문 투자자 못지 않은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한 이 책은 여전히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는 베스트셀러이다.

피터 린치는 ‘투자는 자신이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두 종류의 투자안목을 갖추면, 일반 투자자도 탁월한 주식발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나는 자신이 속해 있거나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특정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전문가적 안목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 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안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목을 통하여 어떤 제품이나 식당이 마음에 들었다고 바로 투자해서는 안되며, 투자 전에 반드시 그 기업의 이익전망, 재무상태, 경쟁상황, 확장계획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피터 린치는 충고하였다.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피터 린치는 기업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펀더멘털 분석을 통해 투자 종목을 선정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피터 린치가 가장 선호한, 10루타 종목(투자한 돈의 10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주식)이라 불리는 급성장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피터 린치의 종목 유형 분류 기준	
구분	세부 내용
급성장주	- 매년 수익이 20 ~ 25% 이상 늘어나는 기업 - 재무구조가 양호하여,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낮은 기업
대형우량주	- 연매출이 수백억달러이고, 수익성장률이 10-19%에 달하는 기업 - 경기의 움직임에 실적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
저성장주	- 대형기업이면서 한자릿수의 이익성장률이 기대되는 기업 - 배당수익률이 투자자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
경기순환주	- 경기 흐름에 따라 일정한 형태로 매출 및 수익이 오르고 내리는 기업 - 투자에 있어 타이밍이 가장 중요.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투자에 유리
회생주	- 구제금융 등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회생하려고 노력하는 기업
자산주	- 대차대조표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자산 가치가 큰 기업

자료: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참조,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성장투자와 가치투자를 접목한 피터 린치의 종목선정 방식

꾸준하게 20 ~ 25%의 이익 성장률을 나타내는 기업을 좋아하는 피터 린치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피터 린치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대상이다. 그러나 이익 성장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아하진 않았다. 피터 린치는 20~25%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기업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였다. 이익 성장률 50%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50%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익이 50% 이상 성장하는 기업은 과열업종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종목은 이미 과대평가된 경우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익성장은 미래 이익이 아닌 과거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았다. 앞으로 잘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보다 지금까지 잘해 온 기업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이다. 피터 린치는 미래수익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수익 예측은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미래수익을 예측하는 대신 기업이 수익을 성장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다. 기업이 수익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원가 절감, 가격인상, 신규시장 개척, 기존시장에서의 판매증대, 손실사업 부문의 재편 등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조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익성장률과 함께 재고자산의 증감 정도를 면밀히 살펴본 피터 린치

이익 성장 측면에서 이익성장률과 함께 피터 린치가 눈여겨본 변수는 재고자산의 변화이다. 피터 린치는 재무제표에 나오는 재고자산 현황을 항상 검토하면서 재고자산의 변화를 매출 규모의 변화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재고가 매출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하였는데, 일단 재고가 쌓이게 되면 신상품이 출시되어 재고품의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계속 재고가 쌓이게 되고 이는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좋은 가격으로 팔리는 성장주를 찾기 위해 PEG를 참고한 피터 린치

성장주를 좋아하는 피터 린치에게서 가치투자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PEG이다. PEG는 PER을 EPS성장률로 나눈 값을 말한다.

대체로 EPS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PER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EPS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PER 수준이 높아도 투자자들이 이를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PER을 기준으로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때는 EPS성장률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즉, PEG는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이익성장률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이다.

피터 린치는 기업의 PEG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PS성장률이 15%인 기업의 PER은 15배 이하여야 투자매력도가 있다고 본 것이다. PEG가 0.5이하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이라 판단하였다.

피터 린치는 같은 PEG를 갖더라도 EPS성장률이 10%이고 PER이 10배인 기업보다는 EPS 성장률이 20%이고 PER이 20배인 기업을 더 선호하였다. 그만큼 이익 성장이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4. 피터 린치의 종목선정 방법을 한국 시장에 적용

종목선정기준(1)
- 과거 3년 연속
EPS성장률 20% 이상

피터 린치의 종목선정 방법을 한국시장에 적용해보았다. 그의 저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종목선정 변수의 기준을 결정하였다.

종목선정기준(2)
- 최근 분기 EPS가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이익성장률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삼았다. 처음에는 과거 5년 평균 EPS성장률이 20% 이상인 기업을 통과 기준으로 잡았다. 이를 통해 선정된 기업들의 투자성과를 살펴보면 KOSPI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종목 선정수가 너무 적다는 단점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분기에 단 한 종목만 선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번 백테스팅에서는 과거 3년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피터 린치는 이익성장률이 20~25%가 적당하며, 5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50% 이상의 이익 성장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백테스팅에서는 이익성장률의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EPS성장률이 20~50%의 범위 내에 있는 종목수가 많지 않다는 점과 함께 급성장주를 놓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다만, 일시적인 실적 증가 기업을 구별하기 위하여 과거 3년 동안 해마다 EPS성장률이 20% 이상이었던 기업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또한 리밸런싱을 매분기마다 실시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실적 증가 기업은 리밸런싱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중장기 실적성장뿐만 아니라 단기 실적모멘텀도 고려하였다. 최근 분기 EPS가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를 종목선정 기준 중 하나로 결정하였다.

과거 3년 연속 EPS성장률 20% 이상, 그리고 최근 분기 EPS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 이상을 만족하는 종목은 3년 전 데이터가 존재하는 1,300여 개 기업 중에서 10~20개 정도 밖에 없었다. 그만큼 종목선정 기준이 까다로웠던 셈이다.

종목선정기준(3)
- 3년 평균
매출액증가율 >
재고자산증가율

피터 린치는 이익 성장에 있어 재고자산의 과도한 증가를 경계하였다. 이번 백테스팅에서는 과거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3년 평균 재고자산 증가율보다 큰 기업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물론, 일시적으로 재고자산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고, 재고자산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 크더라도 그 차이가 미미해 기업의 영업상황에 있어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는 이번 백테스팅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종목선정기준(4)
- PEG 0.5 이하

피터 린치는 기업의 PEG가 1배 이하이면 적절한 수준이고, 0.5배 이하인 기업은 밸류에이션 매력에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백테스팅에서는 분기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실시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PEG가 0.5배 이하인 종목으로 한정하였다. EPS성장률은 과거 3년 평균 EPS성장률로 정했고, PER은 최근 4개 분기 PER을 기준으로 삼았다.

종목선정기준(5)

- 부채비율 80% 이하

그 밖에 피터 린치는 보수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을 선호하였다.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부채비율이 50% 이하인 기업을 선호하였고, 80% 이하면 괜찮다고 판단했다. 이번 백테스팅에서는 최근 분기 부채비율이 80% 이하인 기업들로 기준을 정하였다.

종목선정기준(금융업)

- 자기자본비율 13.5% 이상, 총자산수익률 1% 이상

금융업의 경우 재고자산이나 부채비율 등에서 제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피터 린치 역시 금융업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 금융업은 재고자산이나 부채관련 기준대신 단순자기자본비율이 13.5% 이상, 총자산수익률이 1% 이상이라는 기준을 따로 적용하였다.

피터 린치의 종목 선정 기준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이익성장률	- 최근 3년 연속 EPS 성장률 20% 이상 - 최근 분기 EPS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 이상	공통 적용
PEG	- PER 40 배 이하, PEG 0.5 이하	공통 적용
재고자산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 평균 재고자산 증가율	제조업
부채비율	- 최근 분기 부채비율 80% 이하	제조업
자기자본비율	- 13.5% 이상	금융업
총자산수익률	- 1% 이상	금융업

자료: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천재투자자들' 참조,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5. 피터 린치 전략, 11 년간 연평균 33.9% 수익률 기록. 같은 기간 KOSPI는 11.3%

2001년 6월 이후 분기 단위로 백테스팅 실시

리밸런싱은 분기 단위로 실시하였다. 리밸런싱 시점은 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분기 결산일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3, 6, 9, 12월 초로 정하였다. 백테스팅은 분기 실적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된 2001년 1분기 실적발표 이후, 즉, 2001년 6월부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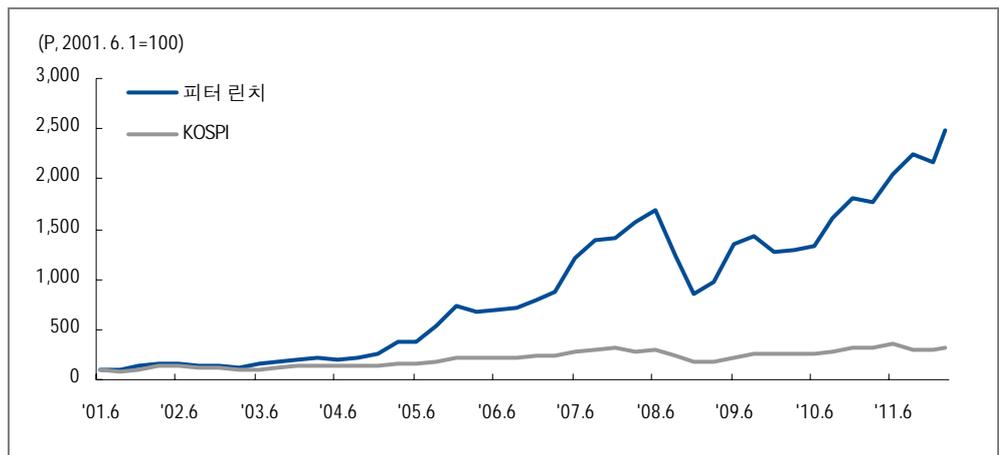
**2001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
피터 린치: +33.9%
KOSPI: +11.3%**

각 분기별로 피터 린치의 종목선정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의 단순평균수익률을 구하고, 이를 누적하여 투자성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피터 린치 투자전략은 2,387.31%의 누적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수익률은 33.9%로 같은 기간 KOSPI의 연평균 수익률인 11.3%에 비해 상당히 높았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총 43개 분기 동안 피터 린치 투자전략의 수익률은 30차례 KOSPI대비 초과수익률을 달성하여 69.8%의 승률을 기록하였다.

피터 린치의 GARP 투자전략은 한국시장에서도 유효

피터 린치 투자전략은 누적수익률만 보면 11년의 기간 동안 10루타 이상은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이 높으면서도 밸류에이션은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는 기업에 대한 투자전략, 일명 GARP(Growth At a Reasonable Price) 전략이 유효함을 충분히 입증한 결과라 판단된다.

피터 린치 투자전략 누적 수익률(피터 린치: 2,387.31%, KOSPI: 224.1%)



주 1: 2001년 6월 이후 분기 단위 리밸런싱 실시

주 2: 종목선정 기준을 통과한 기업의 분기 수익률을 단순평균하여 피터 린치 전략의 분기수익률 계산

주 3: 분기별 수익률을 복리 형태로 누적하여 누적 수익률 계산

자료: FnGuide,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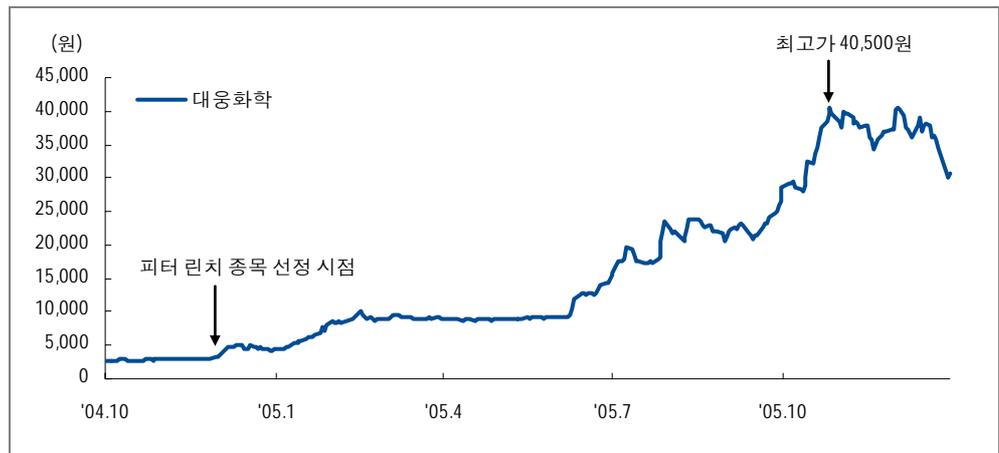
6. 백테스팅 과정에서 10 루타 종목은 대웅화학 하나만 나타나

백테스팅 과정에서 나온 10루타 종목은 대웅화학

피터 린치의 종목선정 기준을 통과한 기업 중 과연 10루타의 수익률을 안겨준 종목이 있었을까? 이번 백테스팅 과정에서 10루타를 달성한 기업은 대웅화학(대웅에 흡수합병되어 현재 상장폐지) 단 하나였다. 피터 린치의 종목선정 기준을 처음으로 통과했던 2004년 12월 당시 대웅화학은 코엔자임 Q10의 매출 호조 등으로 EPS는 80% 이상 성장하고 있었지만 PER은 불과 2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었다. 2004년 11월 말에 3,245원이었던 대웅화학의 주가는 이후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2005년 12월 1일에 40,500원까지 상승했다. 종목 편입후 주가 고점까지의 수익률은 1,148.1%였다.

그러나 대웅화학 이외에는 10루타를 달성한 기업이 없었다. 물론 피터 린치의 종목선정 기준을 통과하였을 때의 주가 수준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볼 때,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웅화학 이외에도 두 종목이 더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동안 연속하여 피터 린치의 종목선정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많지 않았다. 이번 백테스팅의 종목 선정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연속하여 종목선정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그 기간은 길어야 2년 정도여서, 개별 종목으로 10루타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았다. 대웅화학은 종목선정 이후 4분기 만에 10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10루타의 수익률이 가능할 수 있었다.

10 루타 종목인 대웅화학의 주가 추이 (2004년 12월 1일 기준 통과)



자료: FnGuide,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7. 높은 성장성, 적절한 밸류에이션 수준을 나타내는 피터 린치 종목에 관심

2012년 1/4분기 기준
 피터 린치 종목
 - 동국제약,
 코리아씨키트,
 솔브레인, 셀트리온

2012년 1분기 기준 피터 린치 종목을 선정하였다. 4/4분기 실적을 발표했거나 컨센서스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적발표 결과에 따라 종목수는 늘어날 수 있다. 피터 린치의 종목선정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동국제약, 코리아씨키트, 솔브레인, 셀트리온이다.

이들 기업들은 최근 3년간 높은 실적 성장세를 기록했음에도 PER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PEG가 0.4배 이하를 나타내는 등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2011년 4/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적 확인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터 린치 종목선정 기준 통과 기업(연초 기준) (단위: %, 억원, 배)

코드	종목명	3년 평균 EPS 성장률	PEG	2012년 예상			
				영업이익	영업이익 증가율	ROE	PER
A086450	동국제약	29.2	0.2	300	11.1	17.3	5.7
A007810	코리아씨키트	151.7	0.1	164	209.4	17.7	6.3
A036830	솔브레인	35.6	0.3	825	27.8	21.0	9.8
A068270	셀트리온	128.6	0.2	2,338	29.2	19.8	21.7

주: PEG는 최근 4개분기 PER에 3년 평균 EPS 성장률 적용. 실적 전망치는 FnGuide 컨센서스 기준
 자료: FnGuide,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우리투자증권 전략 스펙트럼 발간목록

작성일	종류	작성자	제목
2012-02-07	Korea Strategy	김병연	외국인, 3 조~4 조원 이상 추가 매수 가능
2012-02-08	Korea Strategy	유익선	원/유로 환율 하락 전환은 외국인자금 유입의 트리거
2012-02-09	Quant Story	김재은	전설적 투자자(3) - 역발상투자자, 데이비드 드레먼
2012-02-14	Korea Strategy	최창규	Korea Hedge Fund Early Bird (1)
2012-02-15	Global Economy	유익선	양회(兩會) 전 중국 경기상황 및 정책 스탠스 점검

Quant Story 발간 목록

작성일	종류	작성자	제목
2011-09-29	Quant Story	조승빈	이익수정비율의 저점 통과, 실적에 대한 우려를 덜어준다
2011-10-27	Quant Story	조승빈	차별화가 예상되는 업종 및 종목 찾기
2011-12-06	Quant Story	조승빈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12-01-11	Quant Story	조승빈	전설적 투자자(1) - 시대를 초월한 벤저민 그레이엄
2012-01-25	Quant Story	조승빈	전설적 투자자(2) -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
2012-02-09	Quant Story	김재은	전설적 투자자(3) - 역발상투자자, 데이비드 드레먼

Quant Check 발간 목록

작성일	종류	작성자	제목
2011-10-10	Quant Check	조승빈	글로벌 시장 대비, 한국의 투자매력도 높아
2011-10-17	Quant Check	조승빈	우려에서 기대로 넘어가는 관문, 3분기 실적 시즌
2011-11-28	Quant Check	조승빈	실적 하향 조정을 힘겹게 막아낸 3/4분기 실적
2011-12-13	Quant Check	김재은	IFRS 컨센서스 신뢰도 회복 중, 아직은 대형주다
2011-12-14	Quant Check	조승빈	철강산업에 뛰어든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셀트리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LP(유동성공급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동 자료상에 언급된 당사 Coverage 기업의 당사 금융투자분석사 투자 의견은 "셀트리온" 은 Buy 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국제약, 코리아비트, 솔브레인" 은 당사 Coverage 가 아닙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